

## 현대 인도의 세계관 변화 연구 -찰스 크래프트의 세계관 변화 과정 모델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hange of worldview in modern India  
- Focused on Charles Kraft's Model of the process of changing the worldview -

정향범 (Hyangbum Jung)\*\*

### ABSTRACT

The worldview of modern India is a product of the religious understanding of India as Hinduism, which was born from the background of Western studies of Indian history and the British East India Company's study of the history of India for the purpose of colonial rule. Through the education of India uncritically accepted this understanding of history, the worldview that understood India as a religion centered on Hinduism was formed, and its fixation was established through a long historical process. A Hindu-centered understanding of the modern Indian worldview is conversion when viewed through Charles Kraft's worldview change model. It is an example of the cultural conversion of the whole of India to Hinduism through the distortion of the history of India by the East India Company, which is an external pressure. Understanding one region as the center of religion in mission the age of globalization is a contradiction of the understanding of other regions judged by the West. A modern understanding of India approached from various angles of politics, economy, society and culture is required, and this is a matter to be corrected in understanding mission field guidance in modern missions.

**Key words :** Charles Kraft, Worldview, Worldview Change, Indian Worldview, Modern India

\* 2021년 8월 19일 접수, 9월 25일 최종수정, 9월 26일 게재확정

\*\* 전주대학교(Jeonju University) 일반대학원 신학과(선교학 전공) 박사과정수료, 전북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303, jso93@hanmail.net

## I. 들어가는 말

인도의 세계관은 힌두교로 개념 규정되어있다. 현대 인도 역시 힌두교라는 종교를 중심으로 이해된다. 인도를 종교로 개념 규정하는 세계관은 유럽의 동양학자들과 영국 동인도회사의 연구 결과이다. 인도 정치권의 힌두교 근본주의 정당도 힌두교라는 종교로 개념 규정된 세계관을 확대 재생산하여 인도를 힌두교화해야 한다는 정치적 선전에 이용하고 있다. 인도의 힌두교화는 정치적 입장의 인도 이해이다.

인도를 기독교 선교적 입장에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도의 세계관이 영국 동인도회사에 의해서 힌두교로 개념 규정되면서 어떤 변화의 과정을 거쳤는지 알아보아야 한다. 이런 변화 과정을 알아봄으로써 현대 인도 이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와 선교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재고할 수 있다.

찰스 크래프트의 세계관 변화 모델은 힌두교라는 종교 중심의 세계관 형성의 과정과 선교지 인도를 통시적 입장에서 진단할 수 있다. 외부의 자극으로 오랜 과정을 통해서 변화된 세계관은 또한 외부의 자극으로 변화될 수 있다. 기독교 선교적 입장에서 동인도회사에 의한 인도 세계관 변화는 기독교 선교에 의한 인도 세계관 변화의 가능성을 갖는다. 이런 변화 과정을 동시대적 공시적 입장이 아닌 통시적 입장에서 진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II장에서는 현대 인도 세계관 형성과정으로 서구의 인도 연구와 영국의 인도 역사서술의 문제를 제시한다. III장에서는 현대 인도 세계관과 서구 기독교 선교의 역사를 통해 선교적 입장에서 어떻게 인도를 힌두교로 개념 규정했는지 정리하고자 한다. IV장에서는 찰스 크래프트의 세계관 변화 과정을 인도 세계관 변화에 적용하여 현대 인도의 세계관 변화와 이에 대한 인도의 정치적 변화를 논해 보고자 한다. 또한 V장에서 결론적으로 현대 인도 세계관 변화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II. 현대 인도 세계관의 형성

현대 인도 세계관의 형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서구에 의해서 진행된 동양학적 인도 연구와 영국의 동인도회사에 의해서 완성된 인도 역사서술 과정을 통해서 현대 인도 세계관의 형성과정을 알아본다. 서구 여러 나라의 인도 연구로 프랑스와 독일, 영국의 인도 연구 그리고, 영국 동인도회사의 인도 역사서술에서는 힌두교 중심의 인도 역사 이해의 시작을 알아본다.

### 1. 서구의 인도 연구

서구의 동양에 관한 연구는 17세기 계몽주의 시기에는 주로 예수회 선교사들에 의해 주어진 중국의 자료에 의한 중국 연구가 주종을 이루었다. 낭만주의 시기에 서구인들의 동양에 관한 관심이 인도로 옮

겨왔고, 인도의 종교와 사상에 관한 연구가 유럽 지식인들의 관심과 열정을 사로잡았다. 그러나 인도의 정치제도와 신화, 다신 사상, 제의 등은 계몽주의자들에게 경멸의 대상이었다. 사띠(sati)<sup>1)</sup>는 유럽 지식인들에게 혐오적인 관습이었으며, 인도는 유럽인들에게 쇠퇴하는 문명의 표징이었다(정진농, 2003: 38, 48-49).

그러나 인도의 형이상학적 사색과 신비적 경향은 계몽주의자들보다는 낭만주의자들을 열광하게 했다. 인도 문학과 사상에 대한 낭만주의자들의 관심은 19세기 초 프리드리히 쉐레겔(Friedrich Schlegel)에 의해 시작되어 레이몽 슈왑(Raymond Schwab)에 의해서 ‘오리엔탈 르네상스’로 명명되었다. 슈왑은 18세기 말의 산스크리트어 문헌의 인도 사상이 유럽에 유입되는 것을 15세기 이탈리아의 콘스탄티노플에서 그리스어 원서와 비잔틴 주석서들의 유입으로 시작되는 르네상스에 비유할 수 있는 문화적 혁명으로 보았다. 비잔틴 제국의 몰락으로 초래한 이탈리아의 르네상스와 같이 오리엔탈 르네상스는 18세기 후반 무굴제국의 몰락 후 인도대륙이 영국과 프랑스의 정치, 경제적 식민지 지배에 들어간 후 산스크리트어 문헌들의 유럽으로 유입되어 번역, 연구됨으로 시작되었다.

낭만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중국은 ‘정치적 유토피아’로 인도는 ‘정신적, 영적 유토피아’로 이해되었다. 인도는 사상적으로 유물론적인 서구에 대해서 정신적인 신화를 낳는 베단타 철학<sup>2)</sup>과 동일시되었다. 인도는 몽상가와 신비가의 땅으로 서구의 상상력을 사로잡았다. 독일 지식인들에게 있어서 인도는 프랑스 대혁명의 민족해방 정신의 표출이었으며, 이는 인도의 상상적 고대와 결부되었다(정진농, 2003: 49-51).

영국 동인도회사(British East India Company)가 시도한 경제 목적의 인도접근에 의한 인도와 유럽의 사상적 교류는 예수회 선교사들에 이은 중요한 통로였다. 18세기 무굴제국의 몰락으로 시작된 영국과 프랑스의 상업적 관심은 벵갈 지역과 인도의 다른 지역들에 대한 오리엔탈 르네상스의 토대가 되었다. 영국인 존 홀웰(John Holwell, 1711-1798)과 알렉산더 도우(Alexander Dow, 1735/6-1779)에 의해 시작된 인도에 대한 최초의 학술적 접근은 인도에서 근무하는 동안에 인도 문화와 종교에 대한 해설서들로 출판되었다. 홀웰은 벵갈 총독을 역임하면서 그의 글들에서 인도의 종교와 철학사상에 대해서 호의적인 태도로 서술하였다. 인도가 모든 지혜의 원천으로 고대 그리스의 철학적 전통에 영향을 미쳤다는 생각을 나타내었다. 이는 1760년대에 독일어와 프랑스어로 번역되어 출판되었다. 프랑스인 앙크틸 뒤페롱(Anquetil Dupreeon, 1731-1805)에 의한『우파니샤드』(Upanishads)<sup>3)</sup> 번역은 유럽의 사상가들에 의한 인도 이해에 크게 영향을 주었다(정진농, 2003: 51-52).

1) 사띠는 인도에서 남편의 시신과 함께 아내를 함께 화장하던 풍습이다. 1829년에 금지령이 내려졌다.

2) 베단타 철학은 범신론적이고 관념론적으로 일원론적인 힌두교 철학이다. 우파니샤드 철학의 정통으로 상카라(Shankara)이후의 인도 철학의 주류이다.

3) 자아(atman)와 우주(Brahman)의 일치를 주장하는 고대 힌두교의 일원론적 사상의 철학이다. 인도의 철학, 종교, 사상의 근원이 되는 베다문학의 후기 작품이다.

1780년 이래로 콜카따(Kolkata)<sup>4</sup>에서 동인도회사 관리들에 의해서 본격적인 인도 연구가 시작되었다. 윌리엄 존스(William Jones, 1675-1749)는 산스크리트어 지식으로 힌두교 연구를 시작한 최초의 학자이다. 벵갈아시아학회(The Asiatick Society of Bengal)을 창립하고, 여기서 최초의 동양학 학술지 『아시아 연구』(Asiatick Researches)가 간행되는 등 힌두교와 인도 연구의 중심지가 되었다. 존스가 번역한 인도 문헌들과 인도와 힌두교에 대한 저술들은 유럽에 전파되고, 독일에서 수용되었다. 독일의 인도 연구는 특별히 유럽어와 인도어의 유사성에 집중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존스는 유럽인들과 인도인들 간의 인종적 유사성과 공통의 근거를 설정하였고, 유럽인의 기원의 문제는 중요한 연구 주제였다. 존스의 연구는 찰스 윌킨스(Charles Wilkins, 1749-1836)와 도마 콜브루크(Thomas Colebrooke, 1765-1837)에 의해서 이어졌다. 윌킨스는 『바가바드 기타』(Bhagavad Gita)를 산스크리트어에서 영어로 번역하고, 콜브루크는 『힌두인의 종교와 철학에 관한 시론』(Essays on the Religion and Philosophy of the Hindus)에서 인도의 문화들을 소개하였다(정진농, 2003: 52-53).

## 2. 영국의 인도 역사서술

근대적 의미의 인도 역사는 인도인들에 의해서 처음 서술되지 않았다. 영국인에 의해서 근대적 의미의 인도 역사서술이 시작되었다. 1817년 제임스 밀(James Mill, 1773-1836)에 의해서 출판된 『영국령 인도사』(History of British India)에서 인도 역사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 서술되었는데, 힌두교 문명(Hindu civilization)과 무슬림 문명(Muslim civilization), 그리고 영국의 시대(British period)였다(Thapar Romila, 2010: 4). 통치자들의 종교를 기준으로 인도의 역사를 세 시기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마지막 시기를 기독교 문명이 아닌 영국 문명으로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역사 왜곡을 시도하였다(백좌흠·이광수·김경학, 1997: 53).<sup>5</sup> 동양학자들의 인도 연구는 인도 종교와 사회에 대한 150년의 연구였으며, 이는 힌두교를 중심으로 하는 인도 역사에 대한 왜곡의 시작이었다. 이를 ‘동양 사회 정체론’이라 부르며, 인도 사회 내의 인도 문화에 대한 동경을 갖는 입장이건, 인도 문화에 대한 야만성을 부각하는 입장이건<sup>6</sup> 인도 사회는 기본적으로 단선적이고 변화하지 않는 사회로 이해되었다. 이런 변화하지 않는 사

4) 콜카따(Kolkata)는 2001년 이전까지 캘커타(Calcutta)로 불리었으며, 1773-1911년까지 인도의 영국 식민지 기간 동안의 수도였다.

5) 서구가 타지역에 대한 이해에서 종교적 이해와 지역적 이해의 혼합으로 역사를 왜곡하는 예들은 역사가들에게서 자주 발생한다. 슈펜글러(Oswald Spengler, 1880-1936)의 역사 이해에서도 이집트 문화, 인도 문화, 중국 문화, 고대 문화(그리스-로마 문화), 이슬람 문화, 멕시코 문화, 유럽 문화의 8개의 문화로 구분 지으면서 지역과 종교로 구분되는 이해가 혼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토인비(Arnold Joseph Toynbee, 1889-1975)의 역사 이해는 현존하는 문명을 서구 문명, 힌두 문명, 이슬람 문명, 극동 문명, 정교회 문명으로 나누면서 역시 힌두, 이슬람, 정교회의 종교적 이해를 시도한다. 특별히 헌팅턴(Samuel Phillips Huntington, 1927-2008)은 세계 구분에서 7-8개의 중심 문명권 구분을 통해 1990년 이후의 문명들을 서구 문명, 라틴 아메리카 문명, 아프리카 문명, 이슬람 문명, 중국 문명, 힌두 문명, 정교회 문명, 불교 문명, 일본 문명으로 나누어 역시 지역과 종교, 그리고 국명이 혼재된 이해를 시도하여 기준이 맞지 않는 지역이해를 시도하고 있다.

6) 막스 뮐러(Max Muller)와 동양학자들, 그리고 막스 베버(Max Weber), 칼 마르크스(Kar Marx) 등의 학자들과 람 모한 로이(Ram Mohan Roy), 다야난다 사라스와티(Dayananda Saraswati) 등의 19세기 인도 민족주의 힌두 개혁자들의 견해 차이에도 불구하고, 종교적 이해인 힌두교로 개념 규정되는 인도 이해는 대동소이하다.

회는 정적(靜的)인 힌두교의 영향으로 형성된 것으로 이해되었다(이광수, 2019: 21-22).

제임스 밀에게 있어서 인도 문화는 야만적인 것으로 당시의 인도와 함께 고대 인도의 종교체계, 정부 형태, 법률 제도, 사회 제도 등은 모두 야만적인 것이었다. 동양학자들의 인도에 대한 동경에 대해서, 제임스 밀은 철저히 인도적인 것들을 매도하였다. 단지 양자에게 있어서 공통점은 인도 사회의 수천 년간의 변하지 않는 본질로 동양학자들은 이것을 순수형태의 불변으로 보았고, 제임스 밀 등의 공리주의자 사학자들은 인도 사회의 전제 군주적 폐쇄성으로 보았다. 공리주의 사학자들은 인도의 후진성을 인도인의 비합리적 문화에서 보았고, 제임스 밀에게 이것은 실용성과 합리적 법률의 결여로 보였다. 전제군주의 보수적인 문화는 영국의 통치가 가져다주는 진보적이고 능동적인 문화로의 변화의 필요를 요청하는 것으로 보였다. 이런 제임스 밀의 인도 역사 이해는 후대에 인도 역사를 이해하는데 큰 영향력을 갖게 되었다. 역사 왜곡의 시발점으로서의 시대구분인 힌두-무슬림-영국의 삼단 구분은 현대 인도 역사 이해인 고대사-중세사-근대사의 시대 구분법으로 지속적인 변화 없이 영향을 주고 있다(백좌흙·이광수·김경학, 1997: 53-54).

동양학자들에 의해서 아리아인(Aryans)에 대한 이론<sup>7</sup>이 형성된 이래로 아리아인이 인도에 들어와 현지인들을 제압하고 노예로 삼고, 선진 문화를 보급하였다는 역사가 서술되기 시작하였다. 이것이 베다 문학이고, 산스크리트 문학이다. 현지인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만든 사회 제도가 카스트 제도이다. 인도의 브라만은 순수 아리아 혈통을 보존한 계급으로 간주 되고, 산스크리트어는 그리스어나 라틴어보다 원형에 가까운 언어로 이해되었다. 고대 인도의 문화는 현대 유럽 문화와 같은 지류에서 떨어져 나간 한쪽 날개로 이해되고 아리아인들은 유럽인들과 가장 가까운 문화인으로 이해되었다.

동양학자들에 의해서 유럽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인도의 산스크리트 문화가 발견되었다. 막스 뮐러는 인도의 고대 문화를 능동적이고 호전적이고 탐욕스러운 서구의 문화에 비해서 수동적, 명상적, 사색적이며 본질은 항상 진리만을 추구하는 문화라고 규정하였다. 이런 인도 문화의 성향은 수천 년 동안 변함없이 이어져 온 것으로 이해되었다.

동양학자들의 가장 큰 오류는 ‘아리아인’이라는 잘못된 가정이다. 아리아인은 모든 동일한 언어 사용자들은 모두 동일한 종족이라는 생각이 낳은 혼돈의 결과이다. 이는 인도의 역사에서 아리아인에 대한 배타적 선민의식을 갖게 하였다. 인도 문화는 아리아인과 비아리아인으로 양분되었다. 지배 카스트들은 선민 아리아인의 후손이라 주장하였다. 식민지배하는 영국과 같은 종족이라는 자부심이 생겼으며, 이는 영국의 인도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는 지배이념으로 작용하였다. ‘아리아 신화’는 인도 민족 운동인 아리아 사마즈(Arya Samaj)운동을 촉발하였다. 인도 문화 운동은 힌두교를 통한 운동으로 시도되었으

7) 유럽어와 산스크리트어를 비교 연구하여 인도어와 유럽어의 계보가 같은 뿌리에 파생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 범주 안에는 산스크리트어, 그리스어, 라틴어, 슬라브어, 켈트어, 튜터어, 이란어, 토카리어 등이 있으며, 이 언어들을 사용하는 종족은 아리아인으로 다 같은 종족으로 이해되었다.

며, 인도의 통일도 선진 문화인 힌두교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되었다. 인도의 부활은 힌두교의 재생, 그리고 힌두교로의 복고를 의미하였다.

이런 이론들의 결과는 힌두교 근본주의자들의 무슬림들에 대한 탄압의 근거가 되었다. 무슬림의 도래는 인도의 고대 이상사회의 파괴를 의미하였다. 모든 인도 역사의 실패 원인은 무슬림들의 책임으로 전가되었다.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무슬림들에 의한 이슬람 국가 건설의 분리 독립이 주장되었다. 이슬람 국가 운동의 근거는 11세기 인도의 무슬림 도래에 놓여졌다.

‘아리아인 신화’에 의한 인도 문화이해는 아리아인의 문화라는 도식을 낳았다. 인도 민족주의의 인도 문화 이해는 힌두교 문화가 아니라 아리아인의 문화이다. 인더스 문화의 주인공은 아리아인이다. 아리아인은 외부에서 인도로 도래한 사람들이 아니고, 인도에서 중앙아시아와 유럽으로 이주하였다. 인도가 아리아인들의 본래 거주지이다. 이런 주장들은 고대 문화를 아리아인의 문화로 만들고, 힌두교를 아리아인의 종교로 삼아서 아리아인들 이전에 존재했던 드라비다인들의 문화에 대해 말소하려는 의도에서 제기되었다. 현재 인도가 가지고 있는 아리아와 비아리아의 문제와 힌두교도와 무슬림의 문제는 모두 힌두교 민족주의 때문에 제기되는 문제들이다(백좌흠·이광수·김경학, 1997: 46-50).

동양학자들은 인도를 철학적 이상으로 이해하였다. 서구는 물질에 대한 관심이 주를 이루는 물질문화의 전당이다. 그러나 인도는 물질을 멀리하는 정신문화의 전형이다.<sup>8)</sup> 이런 주장은 현대 힌두교 개혁 운동가인 스와미 비베까난다(Swami Vivekanada) 등에 영향을 주어, 자신들의 정신문명이 서구의 물질문명보다 우수함으로 인도인들의 전통과 유산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인도에서 기록된 사료들 가운데 서구의 동양학자들이 인도를 정신문명의 신기원으로 주장하기 이전까지 인도 내에서 다른 민족과 비교해서 자신들을 우수한 정신을 가지고 있고 사교가 철학적이라고 정의하는 예는 찾아볼 수 없다. 서구 동양학의 인도 이해는 역사 기록인 사료에 대한 곡해와 분석의 오류, 그리고 의도된 왜곡에서 비롯된 결과이다(백좌흠·이광수·김경학, 1997: 51-52).

### III. 현대 인도 세계관과 서구 기독교 선교의 역사

인도는 초대 교회 전통상으로 사도 도마에 기원하는 교회의 기원을 가지는 나라이다. 그러나 현대 인도 세계관인 힌두교 중심의 인도 이해는 영국 동인도회사의 식민지 지배기에 시작되는 영국 개신교 선

8) 힌두교에서 삶의 최고목표로 삼는 다르마(법, 도리, 의무), 아르타(부-副), 까마(성애-性愛), 목샤(해탈-解脫)에 있어서 다르마, 아르타, 까마는 사회적 목표이고, 목샤는 개인적 목표이다. 앞의 셋은 인간을 제사 중심의 사회에 국한 시키는 의도에서 제기된 것이고, 목샤는 이에 대한 반발로 자아를 찾는 새로운 영적 운동이다. 이는 힌두교가 구원의 중심을 재가와 물질의 삶에 둔다는 의미를 갖는다(이광수, 2020: 140). 이는 동양학자들이 이해한 인도의 힌두교는 힌두교의 역사적 형성과는 무관한 동양학적 힌두교 이해의 산물임을 알 수 있다.

교가 의미를 갖는다. 1793년 윌리엄 케리(William Carrey, 1761-1834)의 선교로 영국 개신교 선교사들의 인도 선교는 시작되었다. 영국 개신교 선교 역시 영국 동인도회사에서 시작된 힌두교 중심의 인도 이해에 기반을 두고 진행되었다.<sup>9</sup> 영국 동인도회사의 힌두교 중심의 인도 이해를 수용하고 개신교 선교사들의 인도 선교는 인도를 힌두교 지역으로 동의하며 선교가 진행되었다.<sup>10</sup>

윌리엄 케리가 인도에 도착하는 1793은 동인도회사의 영토 내에서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종교적 행위를 하는 선교사들의 입국이 제한되는 법이 만들어져 적용되기 시작하는 해였다. 윌리엄 케리 역시 이런 제약 때문에 끝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덴마크의 식민지이던 세람포르(Serampore)에서 사역을 시작하였다.<sup>10</sup> 윌리엄 케리와 함께한 동료들 역시 기독교 선교 목적의 인도 이해에서 힌두교라는 종교 중심의 인도 이해를 시도하였다. 윌리엄 케리는 천 페이지에 달하는 산스크리트어 문법책을 인쇄하였고, 많은 시간을 드려 라마야나(Ramayana)를 영어로 번역하였다(Stephen Neill, 1986: 225).

윌리엄 케리와 함께 사역한 윌리엄 워드(William Ward, 1769-1823)는 1792년 쓰여져 선교사들에게 영향을 준 찰스 그랜트(Charles Grant, 1746-1823)의 『대영제국의 아시아 도덕 개량을 위한 연구』(Observations on the State of Society among the Asiatic Subjects of Great Britain, Particularly with Respect to Morals: and on the Means of Improving It)의 영향으로 쓴 글인 『힌두들의 역사, 문학 그리고 역사 연구-관습과 풍습의 간략한 설명과 주요 작품의 번역을 포함하여』(A View of the History, Literature, and Religion of the Hindoos: Including a Minute Description of their Manners and Customs, and Translations from their Principal Works)에서 기독교적 입장에서 인도 역사를 설명하였다. 영국의 인도 지배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입장이다. 그리고 고대 힌두 국가에 대해서는 그 미신성에도 불구하고 과학적이고, 계몽적인 행정이 있었고, 그리스와 로마보다는 못하지만, 야만적이지는 않았다고 서술하였다. 특별히 전통적인 인도의 법체계는 영국에 의해 소개된 것보다 쉽고, 효과적이었다고 보았다. 그러나 힌두교에 대해서는 우상숭배로 규정하며, 자항기르에 대해서는 악바르보다 미신적이었다고 보고 있다.

윌리엄 케리와 함께 세람포르의 삼총사(Serampo Trio)로 불리던 조쉬아 마쉬만(Joshua Marshman,

9) 윌리엄 케리 이전에 이미 개신교 선교가 존재했었다. 케리의 선교는 이미 있던 선교를 이어받은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특별히 케리의 인도 이해 역시 힌두교 중심의 인도 이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케리의 선교가 개신교 선교의 전환점(turning-point)이 된다는 점에서 이 글에서도 케리를 현대 개신교 선교 기초자임을 전제로 서술한다(Stephen Neill, 1986: 222).

10) 인도 내의 이슬람교도들에 대한 선교사로 헨리 마틴(Henry Martyn, 1781-1812)이 있지만, 인도 내의 선교적 흐름에서 대다수의 선교사와 기타 선교 흐름에서 인도는 무굴제국을 경쟁자로 생각한 동인도 회사의 역사 이해에 의해서 힌두교의 땅으로 개념 규정되는 것을 볼 수 있다.

11) 영국 동인도회사의 종교정책은 1793년 윌리엄 윌버포스(William Wilberforce, 1759-1833)에 의한 개혁제외에 대한 반작용으로 선교사 입국 제한에 대한 법 개정으로 시작되어, 20년 후인 1813년에야 영국인 교회들에 들에 의한 동인도회사 내의 영토에서의 설교가 가능해졌고, 그후 20년 후인 1833년에 한 번 더 법 개정으로 영국 교회가 아닌 다국적 선교단체들의 동인도회사 내의 영토에서 복음 전파에 대한 자유가 주어졌다. 인도 선교에 대한 동인도회사의 종교정책은 이 순서대로 이해될 수 있다(C. B. Firth, 2008: 145-164).

1768-1837)의 아들인 존 클락 마쉬만(John Clark Marshman, 1794-1877)은 1863-1867년에 마운트 스투어트 엘핀스톤(Mountstuart Elphinstone, 1779-1859)이 1840년경에 쓴 『인도사』(The History of India)의 후속편으로 저술한 3권의 저서 『초기 인도 역사에서 달하지의 행정 말기까지』(The History of India from the Earliest Period to the Close of Lord Dalhousie's Administration)에서 역시 영국의 인도 지배를 어둠의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로 서술하고 있다.

19세기 이후에는 기독교 선교사들 가운데 힌두교 사상에 대한 학문적 이해와 사티와 같은 과격한 관습의 폐지로 힌두교에 대한 동정적 입장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워드 역시 초기와는 달리 힌두교 신학 가운데 숭고한 부분을 인정하기 시작하였다. 제임스 휴그(James Hough, ?-?)는 1839-1860년에 저술한 책『기독교 초기 부터의 인도 기독교사』(The History of Christianity in India from the Commencement of the Christian Era)에서 인간의 영혼을 손상시키는 힌두교 사제들인 브라만들의 우상숭배에 대한 부분과 함께 고대 힌두교 사제들의 ‘지혜자들’(sages)의 종교 사상적인 숭고함과 미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1855년의 벵갈 개신교 선교사 총회(A General Conference of Bengal Protestant Missionaries)에서는 힌두교에서 숭배되던 버려진 신들과 여신들에 대한 풍자를 통해서 영국 개신교 선교 초기의 선교 과정에서 힌두교와 이슬람교의 약점에 대한 설교가 있었고, 논란이 되었던 공격적인 선교 방법들이 있었음이 언급되었다. 또한, 힌두교의 의례와 종교적 행위 가운데 노동자들의 예배는 힌두교가 인도의 문화라는 점에서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음이 제시되었다. 1876년 19년간 꼴까따에서 사역한 제임스 버간은 그의 책『삼지창, 초승달, 그리고 십자가-힌두교, 불교, 이슬람교 그리고 기독교 시기의 인도 종교사 연구』(The Trident, the Crescent, and the Cross: A View of the Religious History of India During the Hindu, Buddhist, Mohammedan, and Christian Periods)에서 계시의 빛으로 축복받지 않은 다른 어떤 민족들보다 힌두교도들은 진실한 사상에 더 가까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것은 곧 비록 기독교인들과 같이 빛나지는 않지만, 이런 빛이 힌두교들에 있는가라는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1888년 런던에서의 선교사대회(A Missionary Conference)에서 마드라스에서 온 감리교 선교사인 코반(G. N. Cobban)은 ‘모든 비기독교인이 모두 악마의 것은 아니다’라고 논쟁하였다. 모든 영적인 진리는 하나님에게서 오고, 힌두교 안에는 진리의 조각이 있다고 이해하였다. 1910년의 선교사대회에서는 인도의 고대 종교에 대한 더 동정적인 접근이 이루어져, 선교사들에게는 기독교 선교를 위한 힌두교에 대한 깊은 지식이 요구된다고 강조되었다(*praeparatio evangelica*). 1913년 잔 니콜 파르쿠허르(John Nicol Farquhar, 1861-1929)는 그의 책『힌두교의 왕관』(The Crown of Hinduism)에서 기독교 안에서 힌두교의 가장 높은 사상이 성취되었다고 선언하였다. 그리스월드(Hervey De Witt Griswold, 1860-1945)는 1923년 출판된 그의 책『리그베다의 종교』(The Religion of the Rigveda)에서 기독교를 리그베다의 성취로 선언하고 있다(C. H. Philips, 1961: 344-350).



#### IV. 찰스 크래프트의 세계관 변화 과정과 인도 세계관 변화에의 적용

기독교 선교학에서 기독교 선교목적의 인류학 연구에서 세계관 변화는 폴 히버트와 찰스 크래프트의 이론으로 대별될 수 있다. 폴 히버트에게 있어서 세계관 변화는 문화 변화의 입장에서 이해된다. 문화는 언제나 변하는 것으로 이런 문화 변화 가운데 세계관도 변화하게 된다. 문화 표면의 변화는 세계관의 변화를 동반한다. 세계관의 변화는 집을 개축하고 이에 따른 기존 집에 속한 건물들을 짓는 것과 같다(홍병룡, 2010: 603-604). 그러나 찰스 크래프트의 세계관 변화는 모델에 따라 설명된다. 세계관은 문화의 중심이다. 세계관은 문화 변화를 유도한다. 현대 인도 세계관의 변화에 대한 설명은 폴 히버트가 주장하는 문화 변화의 흐름 속에서의 세계관의 변화라는 입장보다는 변화의 모델들과 과정에서 세계관의 변화를 설명하는 찰스 크래프트의 입장이 더 적합한 설명 방법이다. 이에 따라 찰스 크래프트의 세계관 변화 모델들을 통한 현대 인도의 힌두교라는 종교 중심의 세계관 규정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찰스 크래프트는 세계관의 변화 과정을 안토니 왈라스(Anthony Wallace)가 1956년 *American Anthropologist* 지에 “Revitalization Movement”라는 제목으로 기고한 재활성화 운동 모델을 차용해서 설명한다(안영권·이대현, 2010: 863). 문화의 핵심개념은 세계관이다. 그리고 문화의 핵심 개념으로서의 세계관의 변화는 문화와 문화의 하부문화 구성원들이 실재를 인식하는 방법들을 결정한다. 변화된 세계관에 의해서 사람들이 실재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과 결과가 지배된다. 세계관의 변화를 통해서 문화의 다른 부분들의 변화도 동기화된다. 문화들의 변화들을 통해서 전체적인 문화의 변화가 생긴다. 따라서 세계관의 변화는 문화 전반에 대한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임윤택·김석환, 2006: 555).

세계관의 변화는 다양한 과정과 결과들을 가져오게 된다. 안정된 상태의 세계관은 모든 것이 잘 유지되는 듯이 보이게 한다. 안정된 상태의 세계관에 대한 도전들은 전쟁, 자연재해, 외부에서 도입되는 다른 관습들과 다른 세계관적 관습에 의해서 생성된다. 이러한 도전들은 기존의 가치들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계기가 된다. 이런 계기로 기존의 사회를 통제하던 규칙들과 지침들에 의문점들이 제시되기 시작한다. 전통적인 가정들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태도에도 의문점들이 제기되기 시작한다. 이런 위기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들이 요청된다.

세계관의 변화는 주로 사회의 외부로부터 유래한다. 사회의 변화는 내부자들에 의해 진행되지만, 이럴 때도 내부자들의 변화는 외부와의 접촉에 의한 결과이다. 서구사회의 현대적인 영향에 의해 전통적 가정들과 접근 방법의 불신이 형성된다. 이런 불신에 대해서 새로운 환경의 변화에 대한 극복의 의지의 한 방법으로 새로운 방식들이 도입되기 시작한다. 새로운 가정에 대한 전략들이 만들어진다. 새로운 가치들에 대한 신뢰가 생긴다. 이런 방식으로 새롭게 도입되는 방법들은 또다시 새로운 안정을 만든다.

새로운 가치들의 생성은 기존의 가치들에 대한 거부를 의미한다. 어느 시점에 생성된 가치관이든 기존의 가치들과는 전혀 새로운 가치들을 갖는다. 새로운 경험들은 전통적인 경험들에 첨부된다. 기존의 전략들은 새로운 가치들의 영향으로 변화된다. 기존의 것 중의 많은 부분은 변형된 형태로 새로운 것들에서 지속된다(안영권·이대현, 2010: 864-865).

세계관 변화의 과정과 결과들은 다양하다. 안정된 상태에 대한 외부 문화의 도전과 자극의 결과는 심각한 문화적 스트레스이다. 스트레스는 지적이거나, 감정적이거나, 영적인 것들이다. 또한 이 세 가지의 혼합일 수도 있다. 이런 스트레스는 ‘긴장감의 축적’을 형성한다.<sup>12</sup> 사회는 스트레스와 긴장감에도 ‘민족 응집력’으로 하나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한다(안영권·이대현, 2010: 867).

사회적 긴장감의 축적과 민족 응집력은 서로 간의 관계에서 유지되는 잠수와 개종으로 상실은 멸종과 재생의 4가지의 모델로 설명되며, 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잠수는 민족 응집력을 유지하면서 외부의 새로운 자극에 대해서 지층 아래로 들어가는 잠수이다. 잠수는 기존의 전통적 세계관의 외적 형식을 유지하는데 용이하다. 기존 문화의 기준을 보호하고 그 기준을 넘어서려는 시도이다. 전통적 세계관의 외형적 변화에 대한 위협에서 본질의 보호를 위해서 표면 아래로 잠수하는 것이다. 변화의 물결에서 변화의 외적 형식에 적응한다. 생존주의적 반응이라 할 수 있고, 혼합주의로 나타나기도 한다. 식민주의에 대한 반응에서 주로 나타난다. 선교에서는 개종자들의 유럽화로 나타나기도 한다.

둘째로 개종은 문화적 개종을 지칭하는 것이다. 기존 사회적 구조의 손실 없이 새로운 세계관의 신뢰감을 수용하는 것이다. 기존 세계관의 압력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다. 같은 사회의 전체 구성원들의 결정 사항으로 대규모 개종이 나타날 수 있다. 기존 사회 구조의 유지가 가능해지는 방법이다.

새로운 인식 패러다임은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전통적인 인식들에 대한 도전으로 형성된다.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은 기존 문화의 근본적인 전제와 평가, 신뢰감 등의 자극은 세계관의 급격한 변화를 초래한다. 이러한 변화는 신뢰감과 가치에 대한 표면적 변화를 수반한다. 그러나 이는 부분적 개종으로 완전한 개종은 아니다. 변화에 대한 새로운 수용이라는 점에서 개종은 중요하다.

잠수와 개종에 의한 세계관의 변화는 기존 문화구조와 세계관의 많은 부분이 손실 없이 존재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민족 응집력이 깨지면서 세계관에 심한 손상으로 회복할 수 없을 때, 사회는 비도덕화 현상을 경험한다. 생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비도덕화 현상은 멸종과 재생으로 나타난다.

셋째로 멸종은 비도덕화된 사회가 민족 응집력을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자신의 사회는 회피되고, 다른 사회와의 제휴가 시도된다. 갑작스러운 현상이 될 수도 있고, 극적인 상황에서 발생할 수도 있다. 몇 대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점진적 과정은 결혼, 침략, 식민화, 대규모 이민으로 인

12) 찰스 크래프트는 이 부분에서 ‘긴장감의 축적’, ‘민족 응집력’, ‘잠수’, ‘개종’, ‘잔멸’, ‘재생’ 등의 알랜 티페트(Alan Tippet)의 다양한 이론들을 수용하여 응용한다(Alan Tippet, 1987).

한 자연적 동화의 과정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또는 구성원들이 자손 번식을 중단함으로써 멸종할 수도 있다. 한 사회가 소망이 없이 포기될 때 전 사회적으로 생식이 중단될 수 있다.

넷째로 재생은 민족 응집력에 대한 실현 가능한 노력이 있을 때 가능하다. 내부인들의 태도에 의해서 가능하다. 사회구성원들의 비도덕화 현상에 대한 거부와 반성은 재건과 재편의 과정으로 나타난다. 혼돈에 대한 새로운 형식의 재형성으로, 새로운 문화 체계의 재건을 의식적으로 모색한다. 사회구성원들 자신들의 문화에 대한 위기 극복의 불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생존에 대한 의지를 바탕으로 재생의 과정을 밟아간다. 결과적으로 새로운 세계관의 확신으로 나타나고, 특별히 재생의 경우는 초자연적인 경우가 많다(안영권·이대현, 2010: 868-871).

찰스 크래프트의 세계관 변화 과정에 의하면 세계관 변화는 외부로부터 유입된 요인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현대 인도의 세계관인 힌두교 중심의 종교적 세계관이 생성되기 전인 무굴제국 시기의 세계관은 국가적 다원주의하에서 이슬람 제국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힌두교와 이슬람교라는 종교적 정의보다는 세속적 입장에서 자신들을 무굴제국의 신민으로 개념 규정하였다. 무굴제국에 있어서 이슬람교는 지배층의 종교이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입장에서 제국 전체를 지지하는 기둥은 아니었다. 제국의 지도적 그룹이 이슬람교도였지만, 민중들의 종교인 힌두교의 종교 의례에 심각한 영향을 주면서, 종교적으로 세계관을 규정하는 정책은 시도하지 않았다. 그러나 무굴제국의 해체가 목적이었던 영국의 동인도회사가 시도한 인도 역사의 기원에 대한 논쟁에서 인위적으로 조작된 힌두교 중심의 종교적 인도 이해가 도입된 이래로 인도의 세계관은 힌두교 중심으로 종교적 이해로 개념 규정되었고, 현재까지도 아무런 저항 없이 유지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특별히 델리 술탄 때와 무굴제국 시기에 이슬람교도 통치자들의 인도 내 힌두교도 민중들에 대한 지배에서 범신론적인 힌두교도의 카스트 제도 등의 현실적으로 굳건히 자리 잡은 체계 등을 굳이 문제 삼지는 않았다. 자신들의 정치적 지배를 위한 조세 납부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힌두교도의 종교에 간섭하지 않았고, 개종을 강요하지도 않았다. 이슬람교로의 개종은 존재했으나 두 종교 공동체 간의 갈등은 없었고, 두 종교 전통이 자연스럽게 새로운 문화를 형성했다. 이슬람교도들의 폭력은 힌두교나 힌두 공동체를 특별히 공격했다기보다는 모든 전쟁의 보편적 행위로 볼 수 있다. 재물을 탈취하기 위한 지역이 종교 사원이었고, 상대의 기를 꺾기 위해 여성을 강간하는 것은 전쟁의 보편적 문법이였다. 이는 당시 이슬람교도들에 의한 힌두교 사원의 노략질과 힌두교 여성에 대한 강간이 단순히 종교적 입장에서 힌두교도와 이슬람교도들의 갈등으로만 볼 수 없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힌두교들 가운데에도 서로 간에 같은 방식으로 전쟁이 진행된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이광수, 2021: 269-270).

이런 역사적 과정으로 영국 동인도회사의 식민통치 목적에서 이슬람교 기득권층에 대한 힌두교도들의 민심 동요를 위해서 만들어낸 역사적 날조가 힌두교라는 종교 중심의 인도 세계관 이해이다. 이런

역사적 사실의 바탕 위에서 찰스 크래프트의 세계관 변화 모델에서 두 번째 모델에 속하는 ‘개종’에 해당하는 사건들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문화적 개종의 사례이다. 무굴제국의 해체와 함께 인도 사회의 무리한 변화 없이 영국의 동인도회사가 시작한 식민통치에서 인도는 인도인들 스스로가 영국의 동인도회사가 제시하는 힌두교라는 종교 중심의 인도 이해에 동의하고 수용하여 자신들의 사고를 수정하였다. 이는 단순히 식자층의 개종보다는 같은 그룹 전체 구성원들의 개종으로 대규모 개종의 사례이다. 영국 동인도회사의 식민통치하에서 인도 사회의 생존과 유지를 위한 방안이었다.

자신들보다 더 강한 서구 영국인들의 외부 압력에 의한 힌두교 중심의 종교적 세계관의 형성은 기존의 무굴제국이라는 이슬람 제국에 의해서 형성되었던 인도인들의 정체성에서 힌두교라는 종교 중심 정체성의 변화와 함께 세계관의 변화를 초래하였다. 이는 단순히 한순간에 변화된 것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시작된 계획에 의해서 역사의 왜곡을 통해 진행된 오랜 역사 과정의 산물이다.

1757년 뵈랏시(Plassey)전투 이래 영국의 동인도회사에 의한 본격적인 인도 식민지화와 근대화의 시작은 향후 100년간의 영국의 동인도회사에 의한 전쟁과 영토 확장의 식민통치를 의미했다. 1600년 영국이 무역을 위해서 처음 인도에 발을 들여놓은 이래로 벵갈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기 전까지는 영국의 대인도 정책은 인도의 종교, 사회, 문화에 대한 불간섭 정책이었다. 영국의 동인도회사가 벵갈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던 시기의 대인도 정책은 인도의 법과, 관습 등을 연구하여 통치에 협조할 중간 엘리트 계층 양성이라는 필요로 변화되었다. 인도의 민족주의는 서구의 민주주의, 민족주의, 반제국주의 등을 접하면서 민족 개념의 형성과 함께 그에 기반을 둔 민족운동의 성장과 함께 시작하였다. 이에 따른 결과는 1857년 세포이 봉기의 발생이었다. 영국의 동인도회사는 세포이 봉기의 원인을 힌두교로 개념 규정된 인도의 세계관에 의한 종교, 사회적 제재에 대한 인도인들의 반감으로 분석하였다. 영국은 힌두교도들과 이슬람교도들 사이에 그리고 카스트 간의 잠재적 갈등을 이용하는 분리통치(divide and rule) 정책을 펴기 시작하였다. 1857년 봉기는 인도 민족 운동의 애국애족과 민족적 자긍심에 대한 원천이 되었다. 19세기 후반에는 모든 계급, 분파, 종교를 초월하는 민족 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게 되었다. 동인도회사의 역사 왜곡은 인도인들의 고대사를 재발견하려는 노력으로 이어졌다. 그 토대는 힌두교에 놓여졌다. 이런 힌두교 중심의 민족 이해는 민족 운동의 원천이 되었다(이광수, 2021: 272-273). 힌두교 종교 중심으로의 인도의 전체적인 문화적 개종은 힌두교 민족 운동의 결과들을 낳았다.

1980년대 이후 확장된 힌두 민족주의의 인도 정계 진출은 힌두교 중심으로 개념 규정된 인도 사회의 개혁의 문제를 악으로 정의되고, 힌두교 문화의 파괴자로 이해된 이슬람교 세력의 척결로 바라보게 하였다. 이는 역사적 근거가 없는 주장이다. 기독교와 이슬람교라는 외래 종교를 대상으로 하는 힌두민족주의의 정치적 주도권 싸움이 그 중심에 놓여 있다. 이런 힌두교 중심의 종교 이해로 개종된 인도 역사 이해를 바탕으로 한 현 정권인 인도 국민당(BJP)은 2014년 집권 이후 힌두교로의 종교의 정치화를 강

화해 나가고 있다. 힌두교 중심주의의 폭력성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지만, 요가부의 설치, 히말라야-갠지스의 인격성 부여, 암소 도축 금지법 등 힌두교 중심의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실제로는 다양성을 담보로 하는 힌두교를 동질 집단으로 하나의 정치 단위로 설정하고 득표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 전술이다(이광수 2021: 288, 319).

## V. 나가는 말

현대 인도의 세계관은 서구의 인도 역사 연구와 영국 동인도회사의 식민지 지배 목적의 인도 역사 연구의 배경에서 탄생 된 힌두교라는 종교적 인도 이해의 산물이다. 이런 역사 이해를 비판 없이 수용한 인도의 세계관 이해는 힌두교라는 종교 중심으로 이해하는 세계관의 형성과 더불어 굳어지고 근·현대의 인도 역사를 통해서 오랜 역사의 과정으로 정착되었다. 현대 인도 세계관의 힌두교 중심의 이해는 찰스 크래프트의 세계관 변화 모델을 통해 볼 때 개종에 해당한다. 외부의 압력인 동인도회사의 인도 역사 왜곡을 통해서 인도 전체가 힌두교 중심으로 문화적으로 개종 된 예이다. 이런 시대착오적인 종교 중심의 지역이해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선교는 세계화 시대의 선교에서 서구가 판단하는 타지역 이해의 모순이다. 현대 선교를 위한 인도 이해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하는 현대적 인도 이해가 요구되고, 이는 현대 선교에서 선교지 인도에 이해에 있어서 영국 동인도회사에 의해 기초 된 인도인들 스스로가 빠져 있는 자가당착적인 종교 중심의 세계관을 넘어서 기독교 선교목적의 인도 세계관 형성의 필요를 요청한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 참고문헌

- 백좌흠·이광수·김경학 (1997). **내가 알고 싶은 인도: 사람·역사·문화 바로 읽기**. 서울: 한길사.
- [Baek J. H., Lee K. S., Kim. K. H. (1997). *What I want to know about India: people, history and culture Read rightly*. Seoul: Hangilsa.]
- 이광수 (2019). **인도사에서 종교와 역사 만들기**. 부산: 산지니.
- [Lee K. S. (2019). *Making Religion and History in Indian History*. Busan: Sanzini.]
- 이광수 (2021). **힌두교사 깊이 읽기, 종교학이 아닌 역사학으로**. 서울: 푸른역사.
- [Lee K. S. (2021). *Deep Reading of Histpry of Hinduism, with Historical Studies rather than religious studies*. Seoul: Puleunyeogsa.
- 정진농 (2003). **오리엔탈리즘의 역사**. 서울: 살림.
- [Chung, J. N. (2003). *History of Orientalism*. Seoul: Sallim.]
- 안영권·이대현 역. (2005). **기독교 문화인류학**, Kraft, Charles H. (1998). *Anthropology for Christian Witness*. 서울: CLC.
- [Ahn, Y. G., Lee D. H. (2005). *Anthropology for Christian Witness*. Seoul: CLC. Trans. Kraft, Charles H. (1998). *Anthropology for Christian Witness*. Maryknoll, NY: Orbis Books]
- 임윤택·김석환 역. (2006). **기독교와 문화**, Kraft, Charles H. (2005). *Christianity in Culture*. 서울: CLC.
- [Im, Y. T., Kim, S. W. (2006). *Christianity in Culture*. Seoul: CLC. Trans. Kraft, Charles H. (2005). *Christianity in Culture*. Maryknoll, NY: Orbis Books]
- 홍병룡 역. (2010). **21세기 선교와 세계관의 변화**, Hiebert, Paul G. (2008). *Transforming Worldview*. 서울: 복있는 사람.
- [Hong, B. Y. (2010). *Transforming Worldview*. Seoul: The Blessed People Publishing. Trans. Hiebert, Paul G. (2008). *Transforming Worldview*. Grand Rapids, Michigan: Baker Academic]
- Firth, C. B. (2008). *An Introduction to Indian Church History*. Delhi: ISPCK.
- Neill, Stephen. (1986). *A History of Christian Missions*. New York: Penguin Books.
- Philips, C. H. (1961). *A Historians of India, Pakistan and Ceylon*.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Thapar, Romila. (2010). *Ancient Indian Social History Some Interpretations*. New Delhi: Orient BlackSwan.
- Tippett, Alan R. (1987). *Introduction to Missiology*. Pasadena, CA: William Carey Library.
- Wallace, Anthony F. C. (1956). Revitalization Movement: Some theoretical Considerations for Their Comparative Study. *American Anthropologist* 58, 264-281.

# 현대 인도의 세계관 변화 연구 -찰스 크래프트의 세계관 변화 과정 모델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hange of worldview in modern India  
- Focused on Charles Kraft's Model of the process of changing the worldview -

정향범 (전주대학교)

## 논문초록

현대 인도의 세계관은 서구의 인도 역사 연구와 영국 동인도회사의 식민지 지배 목적의 인도 역사 연구의 배경에서 탄생된 힌두교라는 종교 중심의 인도 이해의 산물이다. 이런 역사 이해가 비판 없이 수용되어 인도의 교육을 통해서 인도를 힌두교라는 종교를 중심으로 이해하는 세계관이 형성되었고, 이렇게 형성된 세계관은 고착화되고 오랜 역사적 과정을 통해 정착되었다. 현대 인도 세계관의 힌두교 중심의 이해는 찰스 크래프트의 세계관 변화 모델을 통해 볼 때 개종에 해당된다. 외부의 압력인 동인도회사의 인도 역사 왜곡을 통해서 인도 전체가 힌두교 중심으로 문화적으로 개종된 예이다. 세계화 시대의 선교에서 한 지역을 종교 중심으로 이해하는 것은 서구가 판단하는 타지역 이해의 모순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하는 현대적 인도 이해가 요구되고, 이는 현대 선교에서 선교지 인도 이해에 있어서 수정되어야 할 사항이다.

주제어: 찰스 크래프트, 세계관, 세계관 변화, 인도 세계관, 현대 인도